

2010년도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(보건복지부 소관)

2011. 3.

국립암센터

- 목 차 -

□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
가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<국립암센터>

1.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할 것 2
2. 양·한방 협진 및 전통의학연구과를 운영하도록 할 것 2

나. 제도개선사항

<국립암센터>

1. 완화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
2. 비정규직 채용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
3.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5
4. 다인실 병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6
5. 양성자치료기 가동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

가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<국립암센터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						
국립암센터	<p>1.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.32%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할 것 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신 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할 것 	<p>○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010. 8월말 1.32%에서 2011. 2월말 현재 1.51% 로 증가 하였음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63 584 1458 819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'10. 8. 31</th> <th>'11. 2. 28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시근로자수</td> <td>1,517명</td> <td>1,524명</td> </tr> <tr> <td>의무고용인원</td> <td>34명</td> <td>35명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근로자수</td> <td>20명</td> <td>23명</td> </tr> <tr> <td>고용률</td> <td>1.32%</td> <td>1.5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장애인에 대한 채용가점제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음</p>	구 분	'10. 8. 31	'11. 2. 28	상시근로자수	1,517명	1,524명	의무고용인원	34명	35명	장애인근로자수	20명	23명	고용률	1.32%	1.51%
구 분	'10. 8. 31	'11. 2. 28															
상시근로자수	1,517명	1,524명															
의무고용인원	34명	35명															
장애인근로자수	20명	23명															
고용률	1.32%	1.51%															
	<p>2. 양·한방 협진 및 전통의학연구과를 운영하도록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·한방 협진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. •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를 운영하도록 할 것 	<p>○ '07년부터 매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중점과제로 한의약부분을 포함한 대체·보완요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·추진해 오고 있음, 추후 한방요법 및 항암한약재에 대해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 양·한방 협진 운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</p> <p>○ 향후 전통의학연구과 운영에도 적합한 인재를 발굴,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p>															

나. 제도개선사항

<국립암센터>

구분	제도개선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립암센터	<p>1. 완화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립암센터는 완화의료 병상확보 목표미달 및 완화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• 국립암센터가 재정수지를 이유로 완화의료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• 국립암센터는 공공성이 중요한 국립의료기관이므로 완화의료 병상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완화의료를 시행하도록 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는 총6개의 임종병실을 통해 통증관리,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돌봄, 환자상태에 따른 의료기관 선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○ 1992년 설계된 국립암센터 병동 및 병실의 구조적 특성으로 완화의료 병동 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임 ○ 따라서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설 신축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
	<p>2. 비정규직 채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암정보센터, 금연콜센터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음 • 보건복지부의 위탁취지와 부합한지 여부와 정규직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바람 •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1. 3. 31현재 국가암정보센터는 정규직 1명(코디네이터), 비정규직 12명, 금연상담전화는 비정규직 14명으로 구성 ○ 정부위탁은 국립암센터법 제5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해 수행할 수 있고, 종사자 정규직화는 동 사업이 정부위탁사업으로서 외부재원으로 운영되어 종사자의 정규직화는 어려운 실정임 ○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구분	제도개선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p>3.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력충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• 국립암센터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므로 우수인력 유출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 • 대학원대학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할 것 	<p>○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력채용을 위해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호사 등 일반직 채용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면접을 실무자 면접과 관리자 면접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있음. - 연구직 및 의사직 등의 경우 인력채용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업적평가로 채용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<p>○ 국내 대형병원 및 대학으로의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인력에 대해 진료 등 포상과,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여 우수인력에 대해 보상을 부여하고 있음 - 간호직 등 대상직원에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적극 지원하고 - 전직원에게는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- 또한 우수인력유치와 직원이직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등 방안을 마련중임 <p>○ 대학원 대학 설립을 위해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(2010. 5) 암관리법 시행에 맞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과학기술부 “국가·특수법인대

구분	제도개선사항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	<p>학설립심의위원회” 심의자료 제출 (2011. 6월말 ~ 7월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 (개교예정일 12개월전까지)
	<p>4. 다인실 병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인실 병상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암센터의 병상당 면적은 BIG 4 병원 대비 64.2%, 유사규모 병원 대비 81.6% 수준으로 협소한 실정임 ○ 이에 따라 부속병원의 부족한 병상확보와 노후시설 개선의 방안으로 2010. 10월 「시설개선마스터플랜」을 수립하여 병동 증축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
	<p>5. 양성자치료기 가동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성자치료기 가동률이 50% 미만이고 해마다 감소추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• 소아암 치료 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성자치료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0. 7월부터 해외 전립선 암환자를 유치하여 치료중에 있고, 향후 전립선 암치료에서 모든암으로 치료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- 또한 소아암 환자 치료비 경감을 위하여 2008. 1월부터 소아암에 대해 보험급여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·실득하여 2011. 4.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대상으로 확정됨. 따라서 소아암 환자들에 대해 치료비 본인부담 경감으로 치료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양성자치료기의 가동률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임